

17세기에 그려진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자리에 별장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별장은 1683년 제2차 오스만 터키군의 침략 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스만 터키 군을 물리친 후 황제 레오폴트 1세는 오스트리아 바로크 건축가 요한 베언하르트 피셔 폰 에어라흐에게 사냥궁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 친브룬을 공식 여름 궁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궁정 건축가 니콜라우스 파카씨로 하여금 로코코 양식으로 개축하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마리아 테레지아는 1500명이 넘는 궁정 신하들과 여름을 보냈습니다. 황제 일가 역시, 손수 궁전을 꾸미는 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궁전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합스부르크 가의 일상생활과 거주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고귀한 층의 호화 방들

17 세기에 이미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 자리에 별장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별장은 1683년 제2차 오스만 터키군의 침략 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스만 터키 군을 물리친 후 황제 레오폴트 1세는 오스트리아 바로크 건축가 요한 베언하르트 피셔 폰 에어라흐에게 사냥궁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 친브룬을 공식 여름 궁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궁정 건축가 니콜라우스 파카씨로 하여금 로코코 양식으로 개축하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마리아 테레지아는 1500명이 넘는 궁정 신하들과 여름을 보냈습니다. 황제 일가 역시, 손수 궁전을 꾸미는 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궁전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합스부르크 가의 일상생활과 거주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궁전에서는 마리아 테레지아 후손들의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고손자인 프란츠 요셉 황제는 이곳에서 태어나 68년간의 통치 후 1916년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2층에 올라오셨다면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소위 말하는 생선가시방입니다.

왼쪽 창 밖을 보시면 어린이 박물관에 딸린 대 황제정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손님들은 황실의 다양한 일상생활을 배우고 몇 가지는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 시종무관의 방을 들여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주 임무는 황제에게 군사정보를 즉각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관계로 인해 그의 방이 바로 군주의 옆방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방 1	<b>친위병방</b>
-----	-------------

이 방에서는 프란츠 요셉 황제의 친위병들이 황제의 거처로 가는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대로 이 궁전은 세라믹 난로로 난방을 하였습니다. 황제 가족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방에 일체의 그을음이 묻지 않도록 궁전 내의 모든 난로들을 방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난방 복도에서(원래 장작으로) 불을 지펴 사용했습니다. 19세기부터는 열풍난방장치를 장착하였다가 1992년부터는 더 이상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 2	<b>당구방</b>
-----	------------

이 방은 프란츠 요셉 황제를 알현하려는 손님들의 대기실로 쓰였습니다. 황제는 일 주일에 두 번씩 사람들을 접견하였습니다. 군인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용했던 이 당구대는 프란츠 요셉 황제의 조부의 것이었는데, 그는 신성로마제국에서는 프란츠 2 세로, 오스트리아 황제로서는 프란츠 1 세로 불리는 황제입니다. 벽에 큰 그림 3 개가 있습니다. 중간 것은 1758 년에 마리아 테레지아 훈장이 처음으로 수여되는 광경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창설한 이 훈장은 황정의 첫 공훈 훈장이며 황실에서 수여하는 최고 훈장 중 하나로 꼽힙니다. 좌우의 그림들은 훈장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 프란츠 요셉 황제는 당시 대 갤러리에서 호화 연회를 베풀었고 궁전 정원에서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이 방의 이름은 금박장식과 콘솔 테이블과 더불어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의 오리지널 로코코 장식에 속하는 값비싼 호두나무판들에서 따온 것입니다. 상들리에는 19세기 것입니다.

이 방에서 프란츠 요셉 황제는 사람들을 접견했습니다. 훈장수여에 감사하기 위해, 청원하기 위해, 혹은 공직에 오른 뒤 인사하기 위해 사람들은 황제에게 왔습니다. 프란츠 요셉 황제는 오전에 100명까지도 접견하였습니다. 황제의 탁월한 기억력은 유명했습니다. 그는 한 번 본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절대 잊어버리는 적이 없었습니다. 황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끝내는 접견은 보통 2, 3분 정도 걸렸습니다.

방 4	<b>프란츠 요셉의 서재</b>
-----	-------------------

프란츠 요셉은 18세에 오스트리아 제위에 올랐습니다. 황제는 매일 엄청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그의 일과는 새벽 5시 이전에 시작되었고 그 하루를 오른쪽에 보시는 자신의 책상에서 보냈습니다. 이 책상에서 그는 서류를 검토하였고, 아침과 점심식사로 여기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신이 지배하는 국가의 제1관리의 생활이 주로 이 책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황제는 자신의 화려한 방들에 일체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습 니다. 그는 자기 가족의 사적인 그림이나 사진들, 그리고 아이들과 손자들의 선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두 개의 큰 초상화 중 하나는 프란츠 요셉 황제의 33 세 때의 모습이며, 다른 하나는 시시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신화적인 인물로 된 엘리자베트 황비입니다.

방 5	<b>프란츠 요셉의 침실</b>
-----	-------------------

황제의 일과는 이 침실에서 시작하여 정확히 짜여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였고, 침대 왼쪽에 있는 기도대에서 독실한 카톨릭 신자답게 아침 기도를 올렸습니다. 철침대는 이 오스트리아 황제의 검소하고 스파르타적이었던 생활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 침대에서 황제는 1차 대전이 한창 치열하던 1916년에 68년간의 제국통치를 끝으로 86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젤 위의 그림은 임종한 황제의 모습입니다. 프란츠 요셉 황제는 그의 기나긴 인생동안 많은 운명의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첫 딸 소피가 2살에 죽었고, 황제의 동생 막시밀리안은 멕시코 황제가 되었다가 혁명가들에게 처형당했습니다. 이어 외아들 루돌프가 비참하게 자살하였고, 엘리자베트 황비는 한 이탈리아 무정부주의자의 손에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방의 출구 왼쪽에 황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1899년에 프란츠 요셉을 위해 „영국식“으로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개의 작은 방들은 엘리자베트 황비가 사용하던 방들입니다. 서재로 사용했던 계단 위 복도 별실에서 황비는 많은 편지들과 일기, 그리고 서를 썼습니다. 이 별실에서 작은 나선형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면 황비의 개인 기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선형 계단은 황정이 끝난 뒤 제거되었습니다. 화장방은 황비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던 곳입니다. 엘리자베트는 그 시대 최고의 미인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자신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가꾸고 운동하는 것이 황비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녀는 바닥까지 내려오는 길고 화려한 머리카락을 손질하느라 하루에 몇 시간씩 보냈습니다.

이제 이 방들을 통과하여 9번방으로 들어 가십시오. 프란츠 요셉 황제와 엘리자베트 황비의 부부 침실입니다.

방 9	<b>부부 침실</b>
-----	--------------

1854 년, 프란츠 요셉은 막 16세가 된 자신의 사촌 엘리자베트와 결혼했습니다. 이 방은 그 결혼을 계기로 만들어진 부부 침실입니다. 프란츠 요셉은 평생 자신의 부인을 숭배했습니다 - 부인 역시 황제에 대해 같은 애정으로 화답했는지는 묻지 않기로 합니다. 엘리자베트는 처음부터 경직된 궁정생활을 거부하였고, 시간이 흐를 수록 자의식을 갖춘 여성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독자적인 생활을 하였고, 먼 곳으로 여행을 다녔으며 빈에는 지극히 드물게 머무르곤 했습니다. 1898년 9월, 엘리자베트는 61세의 나이로 제네바에서 이탈리아의 무정부주의자 루이지 루케니의 줄칼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방 10	<b>황비의 살롱</b>
------	---------------

엘리자베트의 접견실은 흰색과 금색의 나무벽판과 밝은 색조의 비단 벽지, 그리고 화려한 뉴로코코 양식의 가구들로 꾸며졌습니다.

방 11	<b>마리 앙드와네르의 방</b>
------	--------------------

이 방은 가족 식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족 디너는 엄격한 궁정 의식에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식탁은 언제나 화려하게 꾸며졌고 중앙에는 꽃과 과일, 캔디들을 가득 채운 황금색 테이블 장식대가 세워졌습니다. 공식 디너 때는 프랑스 요리가 서빙되었고, 가족끼리 식사할 때는 프란츠 요셉 황제의 경우 비너 쉬니첼, 린츠골라쉬, 타펠쉬피츠나 유명한 카이저쉬마른 같은 빈의 요리를 선호했습니다. 항상 신선하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은 궁정요리관으로부터 보온박스 속에 넣어져 각 거처로 운반되었으며, 바로 인접한 방에서 처음에는 석탄열판으로, 나중에는 가스열판으로 따뜻하게 데워 차려졌습니다. 황제는 식탁 중앙에 자리 잡고, 황비도 참석할 경우에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자신의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자주 식사를 걸렀으므로 황제와 같이 식사하는 일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가족 디너는 대개 저녁 6시에 시작하였고 3단에서 6단까지의 메뉴로 구성되었습니다. 원형 그대로 차려진 식탁의 식기 세트는 빈 호프부르크에 있는 구 „황실식탁, 은전시관“의 대여품인데, 그 곳에는 황실에서 사용하던 도자기와 은 귀중품들이 지금도 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베트가 직접 사용하던 식탁세트 뿐만 아니라 마리아 테레지아가 사용하던 금 식사도구 등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방 12	<b>아이들 방</b>
------	--------------

아이들 방은 마리아 테레지아 딸들의 초상화로 꾸며져 있습니다. 11명의 딸들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정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왼쪽 바로 문 옆에 마리 크리스티네의 초상화를 보실 수 있는데 그녀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가장 사랑하던 딸입니다. 그녀만이 유일하게 연애결혼을 허락받았는데 그 남편이 바로 알베르티나의 창립자인 알버트 폰 작센-테센 공입니다. 여기서 잠시 욕실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욕실은 1917년에 합스부르크 마지막 황비인 치타를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다음 방으로 가는 출구에서 잠시 아침식사용 별실을 들여다보십시오. 벽을 장식하고 있는 메달들의 애플리케 수공은 마리아 테레지아의 어머니인 엘리자베트 크리스티네가 직접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방 14	<b>황색 살롱</b>
------	--------------

셴브른 궁전의 정원쪽 거처는 이 황색 살롱부터 시작됩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제네바 화가 리오타르트의 파스텔화들로서 아주 사실적으로 서민층 아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과 강한 대비를 이루는 것은 마리아 테레지아 아이들을 그린 전형적인 궁정식 초상화들인데 바로 다음 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에는 또한 궁정화가 마틴 판 마이텐스가 그린 헝가리 여왕으로서의 마리아 테레지아 초상화도 있습니다.

방 16	<b>거울홀</b>
------	------------

거울홀은 마리아 테레지아의 가족 연회에서, 특히 소규모 연주회 등을 열 때 사용되었습니다.

1762 년에 바로 이 홀에서 이제 겨우 6 살의 모차르트가 마리아 테레지아 앞에서 첫 연주를 하였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썼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불꽃은 폐하의 무릎에 튀어올라 목을 끌어 안고 마구 키스를 퍼부었어.“

방 17, 18, 19	<b>로자방</b>
--------------	------------

이 방과 연이은 두 방들은 풍경화가인 요센 로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문 왼쪽의 첫번째 그림은 스위스 아르가우에 있는 하비히츠부르크로서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출발지입니다. 이 방에는 황제 프란츠 슈테판 1세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는 1745년, 부인 마리아 테레지아의 정치적 수완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신성로마제국 황제로 선출되어 대관식을 올렸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합스부르크 세습국들을 통치하는 동안, 프란츠 슈테판은 황제로서의 의무 수행 외에 자연과학과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 그림에는 예술, 역사, 자연과학에 대한 그의 관심을 보여주는 물품 및 수집품들과 함께 한 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방 21, 22	<b>대 갤러리와 소 갤러리</b>
----------	---------------------

궁전의 중앙에 위치한 대 갤러리는 황제의 가족들이 무도회나 만찬, 혹은 성찬장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길이가 40미터 이상이고 폭이 거의 10미터에 달하는 이 대 갤러리는 궁정행사를 치르는 데 아주 적격이었습니다. 크리스탈 거울들과 금박의 석고 세공장식, 그리고 천정 프레스코들로 이루어진 이 홀은 로코코 시대의 총체예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천정 프레스코들은 이탈리아 화가인 그레고리오 굴리엘미의 작품 이며 마리아 테레지아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프레스코 중앙에는 프란츠 슈테판과 마리아 테레지아가 옥좌에 앉아 있고 그 주변에는 의인화된 통치자의 미덕, 그리고 황정 세습국의 알레고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1901년에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나무를 깎아 금박을 입힌 두 개의 대형 상들리에에 각각 70개의 양초들을 꽂아 사용하였습니다. 황정이 끝난 후 대 갤러리는 연주회장으로 사용되었고, 1961년에는 케네디와 흐루시초프의 역사적인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왼쪽 창밖을 보시면 어린이 박물관에 딸린 대 황제정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의 이름은 금박장식과 콘솔 테이블과 더불어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의 오리지널 로코코 장식에 속하는 값비싼 호두나무판들에서 따온 것입니다. 상들리에에는 19세기 것입니다.

방 23, 24	<b>중국식 원형 별실과 타원형 별실</b>
----------	--------------------------

소 갤러리의 양쪽에 중국식 별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 타원형이고 오른쪽이 원형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당시 대유행이었던 중국과 일본예술을 지극히 애호하였습니다. 두 별실 안에는 값비싼 중국산 래커 무늬판들이 흰색의 나무벽판 안에 자리잡고 있고 그 황금테두리로부터 작은 벽선반인 콘솔들이 자라나 있으며 그 위에 청백도자기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상감세공작업의 널마루바닥 역시 예술의 극치를 보여 줍니다. 두 별실들은 오락실과 회의실로 쓰였습니다. 중국식 원형 별실에서는 마리아 테레지아와 카우니츠 재상이 비밀 회담이나 의논 등을 하였습니다.

방 25	<b>카루셀방</b>
------	-------------

카루셀, 즉 승마 페레이드방은 두 개의 큰 그림 중 왼쪽 그림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그림에서 승마 페레이드를 하고 있는 귀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 테레지아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쟁에서 프라하를 탈환한 기념으로 1743 년 호프부르크의 겨울 승마학교에서 개최한 행사였습니다. 오늘날 스페인 승마학교라 불리는 이 겨울 승마학교에서는 지금도 흰 말들, 즉 리피차너들의 묘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중앙에 마리아 테레지아 자신도 리피차너를 타고 궁정의 귀부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왼쪽 초상화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버지 칼 6세가 화려한 스페인식 코트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